



한양대학교

답안지 (인문계)

답안지 바코드



206466

지원 학과

성 명

수험번호

생년월일
(예:980301)

수험생 유의 사항

1. 답안지는 검정색 펜(볼펜, 연필, 샤프)으로 작성하십시오.
(빨간색이나 파랑색 사용금지)
2. 답안지를 수정할 경우 지우개(연필, 샤프 사용 시)를 사용하거나
두 줄을 긋고(볼펜 사용 시) 그 위에 재 작성하십시오.
3. 답안과 관련 없는 표현이나 표시를 한 답안지는 "0"점 처리 됩니다.
4. 본 고사는 답안지 1장 이내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
답안지 교체는 가능하지만 기존 답안지 제출은 불가합니다.

제시문 (가)와 제시문 (나)는 경제의 불균형에 관한 해결책으로 의	70
도록의 재분배에 대하여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. 먼저, 제시문	
(가)에서는 비자발적인 소득의 재분배는 정당하지 않은 행위라고	
보고 있으며, 이는 결국 개인들의 재산권 즉 경제적 자유를 침해한	140
다고 주장한다. 반면에, 제시문 (나)에서는 불평등이 천박적 자살미	
의하여 나타나고 있어 누락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. 따라서 누락된	210
발견에 선 최숙혜에게 불평등을 상쇄시킬 만한 배려를 해야 한	
다고 보고 있다.	280
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제시문 (가)와 (나)는 명백한 공통점과	
차이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. 먼저, 공통적으로 두 제시문은 불평등을	350
인정하고 있다. 제시문 (가)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을 지극히 당연한	
것으로 보고 있다. 제시문 (나)로 마찬가지로 차등적 원칙 속미르	420
불평등을 허용한다. 그러나, 불평등의 계기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	
해 차이점을 보인다. 먼저 제시문 (가)는 불평등의 계기에 대하여 단	490
지, 개인적 노력의 결과로 한 판단하고 있다. 따라서 소득의 재분배를	
개인의 노력을 촉진하고 감행행위로 판단하고 있다. 그러나 제시문 (560
나)는 이와 달리 천박적 자살을 불평등의 계기로 보고 있다. 이는	
개인이 어쩔 수 없는 사회적 변수이기 때문에 적어도 중립한 시작	630
점에 서 수 있게 자원의 원천인 소득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본다.	
사회적으로 불균형이 중화되어야만 안정된 사회라고 판단된다. 따라서	700
제시문 (나)의 주장이 더 정당한 사회에 적합하다. 이러한 관점으로	
제시문 (가)의 노인에 대한 개인적 차액 행동은 최숙혜에게 긍정	770
한 기회를 주는 행동으로 판단된다.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야기하는	
천박적 자살은 존재한다. 최근에 이슈화가 되는 정유라 사건을 보면,	840
우리는 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다. 많은 사람들이 노력으로 결과적	
만을 때 시작점이 같았던 그녀는 더욱 쉽게 결과를 손에 넣는 것	910
을 보고 이러한 불평등은 잘 못 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. 이로	
보아 개인적 차이는 이 불평등한 사회에 피해자인 노인을 배려하고 소득의	980
재분배를 하고 있다. 이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이의 행동은 법적으로도	
근거를 들 수 있다. 기불편을 보장해 주는 국가의 개인적 경제적	1050
자유를 보장할 뿐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모	
하여야 한다. 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차등의	1120
원칙을 고려하고 있음이 명백하다. 즉, 국민으로서 노인 같은 사회적	
약자들을 보듬어주는 방방등 하나로서 복지들에게 세금을 걷는 소득	1190
의 재분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. 따라서 노인에게	
대한 행동과 사회적 득혜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의 재분배에	1260
관한 주장은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옹호될 수 있다.	